

HPAI 재발 무엇이 문제인가?





재발 방지 위해 대비했지만 HPAI 발생 야생조류 유입, 근본적 근절 사실상 불가능

HPAI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공식적으로 HPAI가 발생했다. 이어 27일 충북 진천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PAI가 확진됨에 따라 벌써 3번째 발생이다. HPAI는 2003년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오리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마다 야생조류를 통해 유입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완전 박멸이 불가능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도 어느정도 예견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방역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제도만으로는 HPAI 근절이 불가능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part I

HPAI 발생현황

6개월 만에 HPAI 재발 야생조류서 시 바이러스 검출

이제 한숨 돌린지 채 6개월 만에 HPAI가 다시 발생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10월 17일 경북 영천소재 종오리농가에서 HP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같은 지역 종계에서 발생했다. 이에 앞서 야생조류의 분변이나 폐사체에서 이미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도 이제 안전지대가 없어 가금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HPAI가 종식된 것은 지난 3월 중순경이다. 2021년 11월 10일 충북 음성외의 메추리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11월 11일 같은 지역 오리 농가 확산을 시작으로 HPAI는 또다시 오리업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전남 지역 발생, 그리고 다시 충남, 전북, 경기 등에서 산발적으로 HPAI가 발생했으며 올해 3월 4일 전남 고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HPAI는 오리 농가 23건 비롯해 닭 21건, 기타 2건 등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713만4천수에 달했다. 축종별 살처분 수수는 닭 50건 507만8천수, 오리 28건 49만8천수, 기타 3건 156만3천수 등이다.

닭 살처분 수수가 특히 많은 것은 산란계 농장들이 대규모화되면서 농장당 사육 수수가 많기 때문이다. 살처분 농가수는 36 농가에 불과하지만 살처분 수수는 424만1천수에 이른다.

오리농가의 경우 육용오리 20농가 39만4천수, 종오리 8농가 9만9천수 등 총 28농가 49만3천수였다.

이는 지난 2020년, 2021년 겨울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와 지역은 물론 살처분 수수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올겨울 HPAI 발생은 당연히 여겨졌다. 해외에서 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새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오리업계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철새에 따른 HPAI 유입은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HP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올 겨울에도 HP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HPAI 발생·검출 현황

(2022년 10월 31일 기준)

야생조류

10월 16일 - 용진군 백령도 (H5N1)

야생조류

10월 17일 - 안성 안성천 (H5N1)

가금농장

10월 21일 - 진천 오리 종오리 (H5N1)

인천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가금농장

10월 17일 - 예천 오리 종오리 (H5N1)
21일 - 예천 닭 종계 (H5N1)

전북

경남

야생조류

10월 20일 - 부안 계화조류지 (H5N1)

야생조류

10월 19일 - 김해 사촌천 (H5N1)

야생조류

10월 10일 - 천안 봉강천 (H5N1)

HPAI 발생일지

- 발생기간 : 2003년 12월 10일~2004년 3월 21일
- 발생지역 : 5개 시도, 10개 시군
- 발생건수 : 19건
- 살처분수 : 393농가, 5,284,493수

2003~2004

- 발생기간 : 2008년 4월 1일~2008년 5월 12일
- 발생지역 : 6개 시도, 19개 시군구
- 발생건수 : 33건
- 살처분수 : 1,500농가, 10,204,000수

2008

2006~2007

- 발생기간 : 2006년 11월 22일~2007년 3월 6일
- 발생지역 : 3개 시도, 5개 시군
- 발생건수 : 7건
- 살처분수 : 381농가, 5,607,635수

2010~2011

- 발생기간 : 2010년 12월 29일~2011년 5월 16일
- 발생지역 : 6개 시도 25개 시군
- 발생건수 : 53건
- 살처분수 : 286농가, 6,472,711수

- 1차 발생기간 : 2014년 1월 16일~7월 29일
- 2차 발생기간 : 2014년 9월 24일~2015년 6월 10일
- 3차 발생기간 : 2015년 9월 14일~11월 15일
- 4차 발생기간 : 2016년 3월 24일~4월5일
- 발생지역 : 전국시도
- 발생건수 : 393건

2014~2016





- 발생기간 : 2017년 11월 17일 ~ 2018년 3월 17일
- 발생지역 : 5개 시도 15개 시군
- 발생건수 : 22건

2017~2018

- 발생기간 : 2021년 11월 10일 ~ 2022년 3월 4일
- 발생지역 : 7개 시도 22개 시군
- 발생건수 : 46건
- 살처분수 : 81농가, 7,134,000수

2021~2022

2020~2021

- 발생기간 : 2020년 11월 26일 ~ 2021년 4월 6일
- 발생지역 : 전북, 경북, 전남, 경기, 충남, 충북 등
- 발생건수 : 106건
- 살처분수 : 487농가, 약 30,000,000수

2016~2017

- 1차 발생기간 : 2016년 11월 16일 ~ 2017년 3월 3일
- 2차 발생기간 : 2017년 6월 2일 ~ 6월 17일
- 발생지역 : 6개 시도 25개 시군
- 발생건수 : 343건

2022~

- 발생기간 : 2022년 10월 17일 ~
- 발생지역 : 경북 예천, 충북 진천



part II

시관련 제도 개선사항

한국오리협회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큰 피해를 겪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단체와 함께 방역당국에 적극 건의한 결과, 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8. 5월~ 연중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 제한기간 14일 준수



'18. 11월~ 일제 입식 및 출하는 평시 7일, 특별기간은 3일 이내 허용
'18. 11월~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및 AI 발생시기에만 적용

오리 예방적살처분(음성판정) 농가 분노처리

오리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농가 모두 바닥 분노 처리 및 세척, 소독



'21. 4월~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500m~10km) 내 예방적살처분 오리농가 중 음성판정농가의 경우 축사 내 분노 발효처리(부숙) 및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분노처리 의무 생략(바닥분노 재사용 허용)

철새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지연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철새 이동제한(방역대)에 따른 육용오리 입식지연 피해의 경우 AI 소득안정자금 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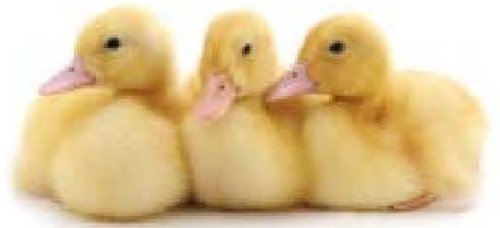
'21. 9월~ 철새 방역대 입식지연 농가에게도 소득안정자금 지원

가금농가 생석회 도포 범위 조정

농장 입구 및 농장·축사 둘레에 생석회 벨트 구성



'21. 10월~ 생석회 도포 범위(의무)는 농장 진입으로 한정



포도송이 AI 방역대 해제기준

AI 방역대가 포도송이로 여러개
겹칠 경우 마지막 AI 발생 방역대가
해제되는 날 방역대 동시 해제
(방역대 해제 지연)



'21. 10월~ 방역대가 겹치더라도 각 방역대별 최소 30일
이후 방역조치 기준 충족 시 방역대가 설정된 순서대로 해제

거점소독시설 운영 기준

축산차량은 관할 시·군 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타 시·군으로
이동



'21. 10월~ 축산차량은 목적지로 이동경로 상 최단거리
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21. 10월~ 생축차량의 경우 도축장이 별도로 민간거점
소독시설 인정을 받는 경우 거점소독을 생각하고 도축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소독

AI 발생 시 예방적살처분 범위

2020년~ 반경 3km 내 전 축종
살처분



'21. 12월~ 반경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오리의 경우
1km까지)으로 완화

거점소독시설의 소독 대상

농장점검 및 시료채취 등을 위한
공무원 차량은 거점소독 미 실시
(의무X)



'21. 12월~ 농장방문 공무원 등의 차량도 거점소독 대상
에 포함

지자체별 AI 발생지역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AI 발생 시 각 지자체별 AI 유입 방지 목적으로 AI 발생지역 시·도 (시·군)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시행



'22. 9월~ 농식품부에서 AI 발생 시 지자체별 반입 금지 시행을 금지할 것을 각 지자체로 공문 전달

철새 방역대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철새에서 AI 항원(H5, H7) 검출 시 10km 이동제한 및 오리 입식 금지



'22. 10월~ 철새 방역대의 이동제한은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

'22. 10월~ 철새 방역대의 예찰지역(3~10km)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방역조치하에 오리 신규 입식 허용

AI 발생농가 입식시험 기준

축사별 산란계 중추(4~12주령) 5마리 / 3주(21일)간 시험사육



'22. 10월~ 시험가축의 종류에 육계(4~5주령) 추가

'22. 10월~ 시험사육 기간을 2주(14일간)로 단축

가금농가 방역시설 기준

AI 발생농가 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 전실 내 신발장과 높이 45센치·폭 15센치 이상의 구조물 설치 / 손 세척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검토



보완 예정 AI 발생농가 전실 내 CCTV 의무화 삭제

보완 예정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가금사육 진입 시 사육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 “전실 내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와 신발장 및 세척술 구비” 생략

보완 예정 손소독제 비치 “또는 일회용 장갑 구비”로 조정

* (농식품부) 전실 등 방역시설은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부 협의중

기타 지속 건의 및 반영 노력중인 사항

오리농가에 대한 각종 과도한 방역조치 문제,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14일 준수에 따른 농가소득감소 문제, 과태료 및 보상금 감액 등 이중처벌 문제 등

↓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심판 회부('21.10.6), 재판절차 예정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로 살처분보상(장기간 발생시 동일한 보상)

↓

건의 살처분보상금은 AI가 발생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로 보상

시·군·구별 AI 최초 신고농가에 한해 살처분보상금 10% 경감

↓

건의 의심신고를 통해 AI로 판정될 경우 보상금 100% 지급(조기신고 유도)

최근 5년 이내 AI가 재발생(2회 발생) 할 경우 보상금 20% 추가 감액

↓

건의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재발생할 경우 감액하는 것으로 재조정

예방적살처분(음성판정)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

건의 예방적살처분(음성판정) 농가는 입식지연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건의 지원기준액은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 기준이 아닌 오리농가 평균소득(최근 사육비 수령액의 80%) 기준으로 조정하고 일정마리수 이상 살처분시 상한액 지원

평시에도 육용오리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 준수

↓

건의 평시에는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 미적용 건의(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